



KKR, 2026 하반기 전망 보고서

'갈림길의 딜레마(The Divergence Conundrum)' 발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 주목

- 일본에 이어 한국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움직임 확산되며 새로운 투자 기회 부상
- 한국 시장의 약 70%가 여전히 PBR 1배 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재평가 여력 존재
- 글로벌 반도체·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서울 - 2026년 6월 11일 - 글로벌 투자회사 KKR은 '갈림길의 딜레마(The Divergence Conundrum)'라는 제목으로 2026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헨리 맥베이(Henry McVey) KKR 글로벌 매크로 및 자산배분(GMAA) 총괄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와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자산배분 시사점을 제시한다.

KKR은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갈림길에 접어들면서 향후 성장이 불균등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맥베이 CIO는 "경기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가 특정 지역·산업·자산군에 집중될 것이며 지역과 섹터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AI와 안보,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AI 확산이 글로벌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강화, 핵심 자원 확보 경쟁으로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안보의 범위가 공급망, 에너지, 식량, 물, 반도체,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등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방위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는다.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우량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명목 GDP에 연동되는 자산을 선호하는 한편, 장기 국채와 저소득층 소비에 노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KKR은 또한 아시아를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 중 하나로 꼽고,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업 구조 개혁에 주목한다. 한국의 경우 취약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구조, 낮은 주주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구조 개선과 주주행동주의가 맞물리면서 2026년 연초 대비 95% 이상의 수익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보고서는 한국 시장의 약 70%가 여전히 장부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KKR

언급하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개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KKR은 이번 개혁의 본질이 단순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아니라, 자본수익률과 지배구조의 질적 전환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분할(carve-out), 전략적 파트너십, 사모 자본을 활용한 투자 기회를 강조한다.

보고서는 또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은 AI 기술 자체보다는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시장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0%로, OECD 평균(0.32%)을 상회해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며, 기업 개혁과 더불어 인적자본 측면의 구조적 개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KKR은 기업 개혁이 지속적인 인적자본 투자와 병행될 경우, 한국의 구조적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KKR은 첨단 반도체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현실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KKR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 관련 주요 시사점]

KKR은 한국 기업 구조 개혁을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투자 기회 중 하나로 평가한다. 과거에는 취약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구조 단순화, 자본 배분 효율성 개선,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이 맞물리며 2026년 연초 대비 현재까지 95% 이상의 수익률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한다. 한국 시장의 70%가 여전히 장부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가치 재평가 여력도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KKR은 또한 한국에서 추진 중인 기업 개혁의 본질이 단순한 주가 재평가가 아니라 자본수익률과 지배구조의 질적 전환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분할(carve-out),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사모 자본 활용을 유망한 투자 접근 방식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한국은 AI 전환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투자 규모가 OECD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 언급됐다. KKR은 기업 구조 개혁과 인적자본 투자가 함께 진행될 경우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KKR은 또한 첨단 반도체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규모

KKR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KKR은 이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KR의 '갈림길의 딜레마(The Divergence Conundrum)' 2026 하반기 전망 보고서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KR이 발간한 다양한 인사이트 자료는 KKR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kr.com/insig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헨리 맥베이(Henry McVey)에 대하여

헨리 맥베이(Henry H. McVey)는 2011년 KKR에 합류했으며, 현재 글로벌 매크로(Global Macro), 밸런스시트(Balance Sheet) 및 리스크(Risk)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KKR 밸런스시트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회사 전반의 시장 리스크(Firmwide Market Risk)를 관리하고 있으며, KKR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공동 총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KKR 글로벌 운영위원회(Global Operating Committee) 및 리스크·운영 위원회(Risk & Operations Committee)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KKR 합류 이전에는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MSIM)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재직하며, 글로벌 매크로 및 자산 배분(Global Macro and Asset Allocation) 부문 총괄과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Lead Portfolio Manager)를 역임했다. 헨리 맥베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R에 대하여

KKR은 대체 투자 운용, 자본 시장 및 보험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입니다. KKR은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한 투자 접근방식을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고용하며 포트폴리오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KR은 사모 투자, 채권 및 실물자산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KKR의 보험 자회사는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의 관리 하에 퇴직연금, 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KR의 투자 활동에는 이와 같이 KKR의 자금을 투자한 펀드 및 보험 자회사들의 투자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KKR & Co. Inc. (NYSE: KKR)에 대한 추가 정보는 KKR 웹사이트(www.kk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에 대한 추가 정보는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 웹사이트(www.globalatlantic.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KR

미디어 문의

더시그니처 손재선 상무 (jason.sohn@thesignature.co.kr / 010-9622-5915)

더시그니처 이원근 과장 (wonkun.lee@thesignature.co.kr / 010-2208-3205)